



### 고양이를 부탁해

최순임 개인전, 30일까지 전대병원 갤러리

화폭 속 고양이의 표정이 변화무쌍하다. 기쁨과 슬픔, 외로움이 교차하는 고양이의 얼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모습과도 닮았다. 의인화된 고양이의 얼굴이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조각가 최순임씨가 오는 30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에서 '의기양양 고양이'를 주제로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그동안 고양이를 의인화한 조각 작품으로 아이들의 동심을 표현해 온 최씨는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회화 작품을 비롯해 테라코타 등 24점을 전시한다.

동화 삽화 같은 화폭 속에 세라믹으로 만든 고양이 얼굴을 얹어 회화의 입체감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자칫 회화의 무게감이 떨어질 것 같지만 의외의 구성미가 느껴져 보는 이의 즐거움을 더한다. 양중맞은 표정의 고양이 조각도 인상적이다.

한편 최씨는 전시 기간 전남대병원 소아과병원 아이들과 함께 미술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220-509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어등미술제 수상작 한자리에

11일까지 서울 '갤러리 GMA'서 전시·판매

광주 광산문화원이 '2012 어등미술제' 수상작들을 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경 광주시향우회가 주최하고 광산문화원이 주관하는 '2013 어등아트마켓'이 11일까지 서울 사간동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GMA에서 열린다.

2012 어등미술제 수상작가 박성완, 박정일, 송영하, 윤준성, 정육재, 정재석씨를 비롯해 광주지역 강동권, 문형선, 박구환, 박유자, 박환숙, 송지윤, 이돈홍, 이병오, 장원석씨의 작품이 전시·판매 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어등아트마켓전은 어등미술제 수상 작가와 광주지역 청년, 중진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판매함으로써 잠재된 지역 미술계를 살리기 위해 기획됐다. 서울지역 향우와 고향 작가를 이어주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문의 062-941-3377, 02-725-004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작은 마음부터 보태세요, 문화 넘어 창조 키워냅니다

### 지역 최초 소셜 펀딩 '마이밈'

광주에서 활동하는 브라스 밴드 '윈드비트'는 지난 4월 광주시 동구 충장로 카페 지노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소액 후원자 35명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성사된 공연이었다. 후원금은 대관료와 브로셔 제작비 등으로 쓰였다.

5월에 광주아트홀에서 공연을 가진 지역 재즈 밴드 '몬테하프' 역시 후원자 33명의 도움으로 대관료, 음향 장비 대여료 등을 일부 지불할 수 있었다. 33명이 모아준 후원금은 모두 56만원이었다.

'윈드비트'와 '몬테하프'를 소액 후원자와 연결시켜준 것은 '마이밈'(MYMEME)이었다.

(주)컬처네트워크가 운영하는 '마이밈'은 광주를 기반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소셜펀딩) 사이트다. 대부분의 소셜펀딩 사이트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마이밈'은 지역 최초의 펀딩 사이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뜻하는 영어의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을 합친 말로, 인터넷 등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보를 위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펀딩'으로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5·18을 다룬 영화 '26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26년'은 총 제작비 46억 중 7억원(1만5000여명)을 펀딩으로 조달해 영화를 완성했다.

'마이밈'을 론칭한 이들은 광주의 젊은 문화기획자들이다. 현재 직원은 모두 6명. 대표이사 윤현석(33), 기획을 맡고 있는 김술(29), 김다형(28), 마케팅 이사 윤열이(29)씨 등 4명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출신이고, 디자이너 박세현(24), 웹진 담당 최진민(27)씨 등이 함께 팀을 이뤘다.

사이트 이름 '마이밈'은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제시한 용어 '밈'에서



광주지역 최초 소셜펀딩 사이트인 '마이밈'을 운영하고 있는 (주)컬처네트워크(대표이사 윤현석·맨오른쪽) 직원들. <(주)컬처네트워크 제공>

### 6명 문화기획자 '밈' 통해 후원자와 연결... 아이디어가 현실로

### 사람과 사람·지식과 지식 잇는 '커뮤니티 플랫폼' 확장 꿈꿔

따왔다. '밈'은 비유적인 속성을 가진 문화의 전달방식, 혹은 '전달 단위'를 뜻하는 용어로 '마이밈'은 '나의 문화유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게 비용 문제다. 개인이 하기는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면 아이디어에만 머물던 게 현실이 될 수 있다. 또 누구나 기획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셜펀딩에 아직은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작은 마음부터 보태면 된다. 문화 향유를 넘어서 사람을 키워낸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공연 하나, 전시 하나를 진행했다는 점을 넘어 경쟁력 있

는 창조적 인재를 함께 키워간다는 마음이 중요하다."(윤현석)

2012년 6월부터 온라인 소셜펀딩 사이트 개발에 착수한 이들은 올 1월 (주)컬처네트워크를 설립하고 2월 정식으로 '마이밈'(www.mymeme.co.kr)을 오픈했다. 3월에는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광주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고용노동부)의 성과를 냈다.

'밈'을 오픈하고 진행된 첫번째 프로젝트는 '광주 공유경제를 유혹하다' 강연이었다. 22명이 투자한 금액은 22만원. 목표액이었던 95만원에는 못 미쳤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5일 현재 마이밈이 진행한 프로젝트는 모두 6개로 모금

된 금액은 176만원이다. 지금 진행중인 아이밈은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정현의 '광주힐링프로젝트-광주, 100인의 희망 릴레이'다. 100명의 인터뷰를 담은 책 발간비를 모으는 기획이다. '밈'을 통한 누구나 프로젝트 제안자와 후원자가 될 수 있다.

'마이밈'은 자금을 모아 행사를 성사시키는 소셜펀딩 플랫폼을 넘어 사람과 사람, 지식과 지식을 이어주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확장을 꿈꾸고 있다. 두개의 플랫폼이 톨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서로 유·무형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네트워크가 구축하려 한다. 이게 지역문화를 건강하게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

윤대표는 "많은 정보와 참여를 끌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예술과 휴식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공간들을 조성하는 것도 목표"라고 말했다. 문의 070-8285-31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합수 윤한봉 선생 6주기 기념

### 유홍준 교수와 고향 강진으로

5·18 광주민중항쟁 마지막 수배자인 합수 윤한봉(1947~ 2007년) 선생 6주기를 맞아 그의 고향 강진을 둘러보는 답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는 오는 22~23일 '2013 민주주의 역사문화답사여행'을 진행한다. 이번 답사에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출간 20주년을 맞아 명지대 유홍준 교수가 함께한다. 청자 빛 바다가 있는 윤 선생의 고향 강진에서 그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자는 취지다.

참가자들은 22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의 문에서 합수 선생 추모식을 진행하고 묘지

를 참배할 예정이다. 이후 강진 칠량에 있는 생가와 칠량초등학교, 정수사, 청자박물관을 둘러본다. 이날 오후 5시부터 강진 아트홀에서는 유홍준 교수가 '합수 윤한봉의 고향, 청자의 고향 강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윤한봉 유홍준 교수

23일에는 다산초당, 백련사, 무위사, 월남사지를 둘러보고, 나주를 거쳐 일정을 마무리한다. 참가신청은 5일부터이며 참가비는 1인당 7만 원(숙식 포함)으로 선착순 90명이다. 문의 062-514-052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9일, 광산농악 16번째 발표회

### 문쟁이굿·도둑잡이굿 등 재현

'광산 농악, 12마당 이야기.'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8호 광산농악 16번째 정기 발표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산구 광산농악보존회 전수관에서 열린다.

지난 1990년 설립된 (사)광산농악보존회(대표 정득재)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문쟁이굿, 남도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마당밧이, 신령이 살아있는 판굿, 장색들의 해학이 묻어나는 도둑잡이굿(사진) 등을 재현한다.

해마다 대구 천왕매기굿, 구미 무을농악, 부산 아이농악 등을 초청했던 보존회는 올해 강원도 원주 농악팀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또 국악 끝나



무들의 무대도 마련된다. 공연 후에는 관객들이 함께 즐기는 뒷풀이 마당이 준비돼 있다. 문의 062-511-5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